

섞임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11/13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24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요일 1:7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요일 1:3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전 1:9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받았습니다.

마 10:38

38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은 몸을 섞으시고, 조절하시며, 조화되게 하시고, 고르게 하시며, 연합시키셨다. ‘섞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차이점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함축한다. 한 형제의 특징은 빠른 것이고 다른 형제의 특징은 느린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몸의 생활 안에서는 느린 것도 사라지고 빠른 것도 제거된다. 모든 차이점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민족과 피부색이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을 섞으셨다. 누가 흑인과 백인이 가진 차이점들을 잃게 만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조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차이점들을 잃는 것이다.

몸의 생활 안에서 조화되고 섞이며 조절되고 연합되며 고르게 되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십자가로 제해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해야한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취향을 따르거나 우리의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중점들을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섞임이 있을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6 장, 204-2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모든 중점들은 우리가 교통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동역자가 무엇을 하든, 그는 다른 동역자들과 교통해야 한다. 한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교통해야 한다. 교통은 우리를 고르게

하고, 우리를 조절하며, 우리를 조화되게 하고, 우리를 연합시킨다. 우리는 자신이 빠르느린지에 대해 잊어버리고, 다만 다른 이들과 함께 교통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한다. 교회생활에서와 주님의 일에서 동역할 때, 우리 모두는 교통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의 섞임과, 특정 권역의 모든 교회의 섞임과, 모든 동역자의 섞임과, 모든 장로의 섞임이 있어야 한다.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 섞이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몇 차례 섞이는 실행을 시작한 후에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입맛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지키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다. 오늘날 현시대가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利器) 덕분에 우리는 서로 섞이기가 매우 편리해졌다. 함께 섞일 때 우리는 십자가와 그 영을 얻는다. ... 우리 자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영에 의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 섞임은 우리가 십자가로 제해지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함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모든 것을 할것을 요구한다.

섞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 만져지고 다른 이들을 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섞이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만져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엇이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라. 우리는 섞임 집회에 와서 잠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말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 우리는 고르게 되고 십자가로 제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그 영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섞임이다.

섞임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따라(엡 3:8-10, 1:9-10)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계 21:2)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엡 1:23)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6 장, 205-2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6 장

11/14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0:17

17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요 12: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엡 5:30

30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12:12-13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레 2:4

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무교 과자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바쳐야 한다.

엡 2:14-16

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섞임의 예표가 있다. ... 교회가 한 떡이라는 바울의 사상(고전 10:17)은 그가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다. 레위기 2 장 4 절에 있는 소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들로 이루어진다. ... 이것이 섞임이다. 바울은 교회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한 떡이자 과자라고 말한다. 이 고운 가루는 밀알로부터 나왔으며, 밀알들은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요한복음 12 장 24 절은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자라서 많은 밀알 곧 그분의 믿는 이들인 우리를 산출하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많은 밀알들이며, 따라서 우리는 갈려 고운 가루가 되어 한 떡이며 과자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 장, 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 2 장은 우리가 단체적인 소제물인 교회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계시한다. 소제물은 기름을 섞은 가루의 형태이거나 (레 2:1-2) 과자의 형태였다(레 2:4). 전자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후자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고전 12:12). 교회생활은 단체적인 소제물이다. 교회생활은 인성과 성령이 연합된 생활이며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진 생활이다. 즉 십자가(소금)를 수반하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유향)를 지니며, 죄(누룩)나 천연적인 애정(꿀)이 전혀 없는 생활이다. ... 우리가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면, 우리는 단체적인 소제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단체적인 소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다. ... 우리가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확대된 소제물, 곧 확대되신 그리스도인 교회생활이다. 이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교회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음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직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성도들의 생명이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들에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조직을 신뢰하지 않고 신성한 생명을 신뢰해야 한다.

신약 전체는 소제물의 생활을 계시한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재이신 것을 계시하는데(비교 요 7:15-18, 1:29, 3:15, 4:15-18), 주님께서 기름과 고운 가루와 유향과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누룩이나 꿀이 없는 소제물의 실재이심을 주로 밝혀 준다. 신약의 나머지 책들은 우리가 소제물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소제물인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교회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과 믿는 이들 각자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이다. 각각의 믿는 이들이 소제물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많은 소제물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합은 단체적인 소제물인 교회생활이다. 소제물은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의 자양분을 위한 음식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뿐 아니라 단체적인 소제물인 교회생활도 먹어야 한다.

소제물의 생활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기름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하는 유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소금을 포함한다. 소제물의 생활에는 죄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고, 천연적인 애정을 포함하여 타고난 생명의 선한 방면들을 상징하는 꿀이 없다. 우리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생활, 즉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있고 그분의 부활 안에 있으며 죄나 천연적인 애정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온전하게 됨, 2 장, 26-2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0 권, 믿는 이들, 165 장

11/15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고전 12:27

27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입니다.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엡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5:27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 19:7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듭난 모든 자녀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므로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개인적이거나 분리되거나 흩어져서는 안 되며, 자신의 지방에서 함께 모여 각 지방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계 1:11).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신 절차이다.

석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나도 여러분처럼 각 지방의 교회들을 귀히 여긴다. 그러나 내가 각 지방의 교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이 목적 때문이다. 각 지방의 교회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절차이다. 교회들은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인도되고 이끌리기 위해 각 지방에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1 장, 14-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의 일의 표준적인 절차는 낱고, 양육하고, 가르치고(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낳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고전 4:15 하, 마 28:19), 양육하는 것은 새로운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들을 먹이는 것이며(살전 2:7, 요 21:15, 17),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이 성숙하여 건축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마 28:20 상, 엡 4:12-16).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는 단계들은 모두 또 다른 더 높은 단계, 곧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계 1:4 상, 11)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존재한다(엡 4:12 하, 16).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건축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아마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각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며 특정한 방식으로 교회생활을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다. ...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많지 않을 수 있다.

교회들 안에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사람들을 ‘석사 학위’ 수준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대학’은 어디에 있는가? ... 우리는 다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외적인 것들을 안배하는 일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문을 달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가 생길 가능성이 없으므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정을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낙후되게 하고 퇴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참으로 실행적이고 실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에 교회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기체인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사실상 우리 존재의 실재가 아니다. 나의 몸은 나이지만, 내 존재의 실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온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물질적인 골격이지만,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 장, 26-2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1-2, 4-5 장

11/16 목요일

아침의 누림

엡 4:12-13, 20-21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고후 13:9, 11

9 언제든지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님들,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일 4:17-18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단체적인 생활이지 어떤 개인의 생활이 아니다. 이 단체적인 생활은 그들 안에 계신, 과정을

거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많은 성도들의 총합이다. 구속받은 이 성도들은 바로 내주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지로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거듭날 때 사람은 하나님-사람이 되지만, 성숙한 하나님-사람은 아니다. ...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린 아기와 같다. 우리는 양육 받고 온전하게 되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일을 구성하는 절차는 낳고, 양육하고, 그런 다음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성도들이 성숙하여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건축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4 장, 51-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유에 있던 그 작은 예수님은 하나님-사람이셨지만,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가? 그분은 인간 생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활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능력의 일이 그의 손을 통하여 일어납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 그 목수가 아닙니까?”(막 6:2-3)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사람들 가운데 최상의 미덕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기이하게 여겼다.

이분은 누구이신가?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 그러나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인간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분은 자신의 인간 생명을 거절하셨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다. 이분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사셨다. 그분은 자신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다(요 14:10, 24).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신 진정한 사람이셨지만,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대해 죽고 계셨다. ... 그분께서 타고난 생명에 대해 죽으신 것은 십자가이며, 그분께서 신성한 생명을 위해 사신 것은 부활 안에 있다.

예수님은 ... 진정한 사람이셨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사셨다. ... 신약에 언급된 십자가에 못 박힘은 갈보리의 나무 십자가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삼십삼 년 반 동안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한 사람, 곧 진정한 사람이 아니셨는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분은 그 진정한 사람에 의해 살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 진정한 사람을 계속 십자가 위에 두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는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모든 속성들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 내어졌고, 이 하나님-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었다.

본래 이러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었지만, 지금 이 생명이 구속받고 거듭나서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 안에서 반복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그들 모두는 양육받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이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살고 있으며, 자신의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해 왔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성숙에 이르는 것이며, 이것은 자아를 거절하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살기를 계속 훈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바울은 살기 위해 죽음으로써 생활했다(갈 2:20). 그는 자신의 타고난 사람에 대해 죽었고, 신성한 생명을 지닌 자신의 새사람에 의해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했다고 말했다(빌 1:19-21 상).(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4 장, 52-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8 권, 이상의 최고봉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1-4 장

11/17 **금요일**

아침의 누림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딤후 2:11-12a

11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12 우리가 건딘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골 3:1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갈 5:24-25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오직 우리가 살아 낸 하나님-사람의 생활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한 생활이 아닌 것은 단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공자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속하고 생명나무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빌 3:10).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하여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질 수 있다. ... 오직 이러한 생활만이 하나님-사람의 생활이며, 오직 이러한 생활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살아낼 수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 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점들과 하나님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활, 3 장, 49-5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경륜의 구상에 따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다. ...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 나는 끝났다. 그러나 내안에 새사람이 있다. 이 새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부활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높아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이제 나는 이러한 사람에 의해 산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옛사람을 계속 십자가에 두지 않는다면, 결코 새사람을 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빌립보서 1 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틀이며, 바울은 자신을 그 죽음의 틀 안으로 넣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자 했다. 부활 능력은 그를 강화하여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게 했다. 주님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몇몇의 사람이 있으리라고 강하게 믿는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아니지만 적어도 잠시나마 이와 같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 많은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너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때

즉시 나는 멈추었다. 이따금씩 나는 아내에게 가려다가 즉시 돌아섰다. 왜냐하면 나의 타고난 사람이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려고 할 때, 내 안의 무언가가 나를 돌려세웠다. 그분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셨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으며, 그 일은 부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하나님-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히 연결되어 연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일 하나님은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시자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이렇게 연합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으며, 부활의 실재는 그 영이다. 이 부활은 믿는 이들 안으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넣어주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해방한다.

이렇게 연합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며,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4 장, 54-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 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점들과 하나님-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활, 3-5 장

11/18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21:10-11, 4:2-3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시 24:7-10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어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계 12:11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한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이 사는 이러한 생활의 총합이자 총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이러한 생활은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에서 이러한 하나님-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이다. 그들은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완결되었다. 그러므로 오는 왕국 시대에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계 20:4-6).(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5 장, 65-6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많은 믿는 이들은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다루심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 왕국 시대의 천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어 이 사랑스러운 이들을 징계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그들을 다루시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천년의 기간 끝에 그들은 앞서 성숙한 이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준비가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시온이고 이기는 이들이며 활력 그룹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일 것이다. ...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곧 지성소이다. 요한계시록 21 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일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있다. 새 예루살렘의 치수는 입방체의 치수이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만 이천 스타디온이다 (16 절). ... 구약에서 성막에서나

성전에서나 지성소는 모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였다(출 26:2-8, 왕상 6:20).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은 그때에는 변화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즉, 벽옥. 계 4:3, 21:11)과 같을 것이다. ...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모습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최고봉에 도달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 다음 시대에 그 대가는 더 클 것이다. ...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모습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사람들인데, 그들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거룩한 성은 일종의 연합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신성한 연합을 누리고 그것에 참여할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장래를 희생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일들의 내재적인 광경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을 그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과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의 단체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이상과 계시의 집대성이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조성체이다. 이 조성체 곧 새

예루살렘은 영원 안에서 한 쌍의 연인이 될 것이다. 이 한 쌍의 연인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다. 그들은 신성과 인성 안에서 상호 거처가 된다. 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도로 표현되고 나타날 것이며, 빛남과 광채와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66-6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투시, 2 장;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2, 4, 11, 13 장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3:1-7;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8-59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Receiving the Believers as God has Received Them

Scripture: 로마서 14:1-15:7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 28; *The Experience of God's Organic Salvation Equaling Reigning in Christ's Life*, ch. 5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860

churchinnyc.org/bible-study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0권, 믿는 이들, 165장

찬송: 279 (英) 먼저 피로 씻고서 (中:227)

1 먼저 피로 씻은 후에 관유로 적셔지네
골고다 가지 않으면 오순절을 못 얻어
피로 씻지 않는다면 능력 임할 수 없네
주님의 증거 되려면 자아 못 박혀야 해

(후렴)

십자가로 혼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해- 성령 충만하도록.

2 먼저 반석 깨져야만 생수 넘쳐 흐르네
먼저 죽음 거처야만 성령 충만 얻으리
우리 진정 주와 함께 죽고 모두 잃을 때
주의 능력 강림하여 세상 구원하리라

3 제단 후에 불이 오고 잃어야 열매 오네
모두 주께 드러야만 보좌 위에 오르리
우리 진정 희생하여 주께 순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나타내게 되리라

4 먼저 빈 병 있어야만 안에 기름 부어져
먼저 계곡 파져야만 생수 깊이 흐르리
먼저 요단 건너야만 기름 바름 많아져
먼저 침례 거처야만 비둘기를 체험해

5 황금 들판 바라볼 때 우리 기뻐하지만
먼저 밀알 죽어야만 많은 열매 얻는다
생명 열매 얻으려면 죽음 체험 필요해
갈보리를 피한다면 생명 능력 없다네

6 주여 나로 신실하게 좁은 길 가게 하고
교만 제해 순종하여 고통 받게 하소서
더 큰 능력보다 깊은 죽음 필요하오니
갈보리의 참된 뜻이 내게 이뤄지도록

11/19 주일

아침의 누림

엡 4:3-6, 11-13, 15-16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